

광주시-에너지엑스(주)-광주테크노파크

# 광주형 AI-그린뉴딜 실현에 적극 협력

##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RE100 실현 협력 이용섭 시장 “산업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 될 것”

광주광역시와 광주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인 에너지엑스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사업 참여 및 광주지역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광주형 AI-그린뉴딜 성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9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광주테크노파크 김진민 원장, 에너지엑스 박성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AI-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63번째 협약이다.

에너지엑스는 2019년 2월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기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던 모든 절차를 개발에서부터 금융조달, 관리운영까지 온라인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이다.

또한, 혁신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투자펀드 운용사인 LSK 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 짧은 시간 내에 자기자본 150억원을 달성했으며, 한국전력으로부터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은 유망기업으로 플랫폼 실적은 총 6935억원, 188,572kW에 이른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엑스는 에너지자립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RE100 광주 실현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RE100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형 AI-그린뉴딜 비전보고회에서 제시된 사업추진 등 환경 마련에 노력하고 에너지엑스는 광주형 AI-그린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



다. 주요 협약내용은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조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 ▲에너지 산업육성 등 상호 업무협력 이 가능한 분야 적극 협력 ▲광주지역 연구소 설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는 ‘광주형 AI-그린뉴딜 비전보고회’에서 제시된 핵심과제 중 그린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엑스 박성현 대표는 “가정용, 소용량 태양광은 그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는 쉽게 접근이 어려운 생소한 분야로 플랫폼을 통해 절

차를 간소화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필요 부분을 편리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가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에너지엑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기업이다”고 했으며 “오늘 협약을 통해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 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형 AI-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동구, ‘스마트 그린도시’ 선정 100억 확보

광주 동구는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10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입택 동구정장이 직접 현장조사부터 발표평가까지 적극 참여하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형 뉴딜정책 중 그린뉴딜 분야로 지역맞춤형 기후 및 환경 개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문제 해결형’으로 동구를 포함해 20곳을 선정했다.

## 서구, 환경에 대한 배려 빛났다.

광주 서구가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저탄소생활 경연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경연대회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의 우수사례를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앞서 서구는 12월 광주은행에서 개최한 제26회 ‘녹색환경대상’에서 종합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11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그룹1위를 차지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올해 환경부장관상을 3개나 거머쥐게 됐다.

## 남구, 효덕동 대주2차·LH천년나무 3단지 최우수 단지

광주 남구는 29일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효덕동 대주2차 아파트와 LH천년나무 3단지가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구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50-29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114곳과 30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 81곳을 소규모와 대규모 그룹으로 분류해 각각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각각 효덕동 대주2차 아파트 단지와 LH천년나무 3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북구, 골목 단위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북구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0일 전남대후문 상가와 운암동 황계 상가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동네 상가나 골목 단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북구는 전통시장법 개정에 맞춰 지난 10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남대후문과 황계 상가변경회를 상인회로 전환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차원의 정부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구역 내 상가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져 매출상승 효과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산구, 옥외광고물 업무 광주 최우수 자치구

광주 광산구가 광주광역시 ‘2020년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옥외광고물 업무 전반에 대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행정처분 실적 등 3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나눠 심사한 것이다.

광산구는 ▲폐업 등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각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부서 사전 경유제 시행 ▲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임형택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 ‘도민이 체감할 큰 그림 정책’ 주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새해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줄 거시적인 성과발전을 이룰 큰 그림의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올 한해는 코로나19와 폭우피해 등으로 도민들의 근심과 피해가 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편으론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보인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올해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큰 도약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분야인 그린뉴딜이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다”며 “해상풍력으로 일자리와 함께 도민 이익공유형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내년부터 실시해 도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개발”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부의 감염병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최일선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로

확진자를 차단하는데 헌신해준데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도정의 현안인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무안공항 중심의 패키지 프로그램 선정 또한 전남으로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이 각종 앱을 통해 숙박과 관광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합라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1단계 50만 관광객 유치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전실국이 협조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 전남도, 우유 무상 급식 ‘초등생 전체’ 확대 지원

전라남도도가 우유 소비 증진 및 낙농산업 안정을 위해 내년 우유 무상 급식 사업비를 늘려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성장기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비 114억 원(국비 58, 도비 12, 시·군비 44)을 투입, 도내 12만 8천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키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우유급식사업

비를 올해 사업비 총 61억 원 대비 53억 원 증액해 초등학생 7만 1천명이 추가로 무상 우유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유급식사업의 기본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

족, 특수교육대상자 등인데, 전라남도는 올해까지 자체적으로 학생수 240명 이하 학교 학생을 비롯 교육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3자녀이상 가구 자녀 등까지 대상자를 확대 지원해왔다.

사업 확대에 따라 내년 전남도내 전체 초등학생은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며, 중·고등학생은 기존과 동일하다.

김정환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걸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저소득층
1.1배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